

【논문】

‘만주국’의 변경 개발과 국경 요새 건설*

박장배**

차례

- I. 머리말
- II. 만주국 건국과 국가경계의 변화
- III. 국가의 변경 요새와 울타리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30년대 만주의 성급 지방행정 체계의 정비와 일련의 국경 요새 건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1932년 괴뢰국가 만주국이 수립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는데 주목한 점의 하나는 최고지방행정 기구인 ‘省’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 문제의 실태와 관련 정책들을 스케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행정체계의 정비와 변경개발-변경요새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실태와 존재 방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만주국의 정책들 중에서 1939년 제출된 ‘北邊振興計劃’은 1937년 개시된 ‘산업개발 5년 계획’과 1936년 제정된 ‘백만호 이민 계획’과 함께 만주국의 3대 기본 국책이라고 일컬어진다. ‘북변진흥계획’은 琿春에서 漠河縣까지 북부변경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의 목표는 ‘소련 대응’이었다. 만주국의 입장에서 소련은 만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막강한 상대였고 그에 따라 관동군은 17개의 대규모 국경 요새를 건립했다. 이러한 국경 요새의 존재는 만주국이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한 전쟁국가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소련 대응에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주국 시기의 변경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경 지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방위전략상

* 본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NAHF-2024-기획연구-17).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

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만주국, 성, 변경 개발, 북변진흥전략, 군사전략, 국경요새

I. 머리말

20세기 전반기 만주는 세력교체와 내부갈등, 인구 폭증과 대대적인 개발의 공간이었고 국제질서 차원에서 동아시아 질서 변동의 축이었다. 이 장대한 드라마에 참여한 세력은 청조·중화민국, 러시아와 일본을 필두로 한 열강, 다양한 군소 집단을 포함한 재지세력들이었다. 당시 최상위에서 만주의 정세를 좌우한 세력은 러시아와 일본이었지만, 동북군벌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 정부는 1907년 4월 東三省의 관제 개혁을 선포하고, 奉天·吉林·黑龍江 등 3개의 行省을 설치하고 장군제를 폐지하였다.¹⁾ 당시 만주는 북만주의 러시아, 남만주의 일본, 그리고 철도 연변과 그 부속지 이외의 지역을 관할하던 청 지방당국 등 3중 권력 상태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개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제 폐지는 청 왕조가 만주 지역을 군정체제에서 민정체제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는 만주의 군정체제가 한국전쟁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민정체제 하의 '동삼성'은 과잉인구의 배출지로서나 부족한 국가재원을 개발하는 신개발지로서나 변방을 지키는 방어기로서 지역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1920년대의 '동북군벌' 정권도 관내의 과잉인구의 수용자로서 다양한 근대적 개혁, 그리고 경제적 개발과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1931년 9·18사변 이후의 동북지역이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장악한 일본 관동군은²⁾ 위성국 '만주국'을

1) 张敏, 2003.2, 「《盛京时报》与清末东三省官制改革」, 『徐州师范大学学报』, 95쪽.

설립하였다. 13년 5개월 동안 존속한 '만주국'은 최고 지방행정기구로 성을 설치하여 '영토'를 관할하였다. 독립국을 표방한 '만주국'은 일본 관동군의 '내면 지도'를 받고 있었다. '만주국' 시기는 '만주국'이 여러 측면에서 국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이때의 '만주국'의 통치전략과 변경문제는 새롭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 '만주국'의 등장은 만주 일대의 경계와 변경에 여러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소략한 편이라고 하겠다.³⁾ 이 연구에서는 '만주국'의 성 정비의 효과, 경계와 변경의 재구성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본군은 중국 국민정부와 1933년 5월 31일에 塘沽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군사정전협정으로 국민정부는 일본의 만주지배를 사실상 묵인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만주사변이 일단락되고 '만주국'은 사실상 '영토'를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만주국'의 국제 지위는 여전히 취약했고 군사적으로도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주국'의 마지노선 구축 등 경계와 변경 문제와 관련이 깊은 사항들을 통해 그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소·만, 만·몽 지역의 對소련군 국경 요새들의 존재는 직접적인 군사적·전략적 수단이 필요했던 당시 만주국의 현실을 잘 드러낸다. 그것들은 일본측의 군사부분과 과학기술의 결합에 대한 강한 의지, 소련의 군사력을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여준다. 관동군은 만주국의 주요 도시가 아닌 몽·만, 소·만 국경지역에 17개의 군사요새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이룽장성 鷄西市의 虎林市 虎頭鎮 서북의 虎頭地下軍事要塞遺址 등은 십만 명 단위의 노동자가 동원되어 막대한 희생을 치른 상태에서 건설되었다. 전쟁기계 관동군은 과학연구

2) 일본군은 1895년 청일전쟁 후 획득하기로 했던 요동반도를 삼국간섭으로 중국측으로부터 탈취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1898년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관동주'를 설치하였다. 만주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관동'은 만주 주둔 일본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1919년 정식으로 명명된 관동군은 초기에는 채 2만 명이 되지 않았다. 1937년에 5개 사단(약 10만 명의 병력)으로 늘어났고, 1941년에는 13개 사단(최대 약 10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1945년 8월 무장해제를 당한 관동군 포로는 59만 명에 달했다. 소련측은 이들을 560개 작업대로 나누었다.

3)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8쪽.

4)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해주 옮김, 2009, 『일본 제국의 교두보: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어문학사, 68-69쪽.

시설과 대규모 국경군사요새들을 건설하면서 구소련군대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대로 국경 요새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II. 만주국 건국과 국가경계의 변화

1. 성의 설치와 운영

1930년대 만주의 지역 구도와 각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와 함께 최고 지방행정구역의 편성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주사변 발발 5개월 후인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은 ‘공화국’으로 수립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1년 후에 溥儀가 만주국 황제로 취임함으로써 ‘만주제국’으로 전환되었다. 만주국은 1934년 3월, 1937년 7월, 1941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행정기구를 정비했다. 1932년 3월에 만주국이 수립된 때부터 1934년 3월에 만주국이 공화제에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변경된 때까지의 시기를 만주국 건국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만주국은 중앙과 지방 행정기구를 정비했다. 1932년 3월 8일 만주국은 ‘정부조직법’을 공포하고 다음날 푸이가 만주국 집정으로 취임했다. 국무원 최고 장관인 총리는 鄭孝胥가 임명되었다. 1932년 3월 9일 만주국 정부는 ‘省公署官制’를 반포했고, 1932년 7월 5일에는 ‘현공서관제’를 반포했으며, 1933년 12월에는 ‘暫行保甲法’을 반포했다.⁵⁾

건국 시기 2년이 지날 무렵 만주국 국무원의 재정부 등 8개 부서와 興安總署와 충무청이 행정권력을 행사하였다. 만주국의 지방행정기구는 省(市)급, 縣(廳)급, 기층급 등 3급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省(市)급은 만국 시기의 행정기구를 이어 받았는데, 1933년 3월 4일 일본군이 熱河를 점령하고 5월 정전협정으로 열하성

5) 1934년 말에 만주국에는 1,267保, 22,403개 甲, 314,306개 牌가 설립되어 있었다.

을 장악한 이후에⁶⁾ 만주국의 성(市)급 행정기구는 ‘4성, 1특별행정구, 2특별시’로 구획되었다. 4성은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 열하성을 말하며, 1특별행정구는 북만특별행정구를 가리킨다. 북만특별행정구는 북양정부가 설립한 동성특별행정구를 물려받은 것으로 중동철도 연접지역 11km 이내를 관리하는데 하얼빈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綏芬河, 남쪽으로는 창춘, 서쪽으로는 만주리에 이른다. 2특별시는 新京(창춘)과 하얼빈을 가리킨다.⁷⁾



[지도 1] '만주제국 신행정구획도'
(康德 원년(1933) 12월 1일 민정부 총무청 정보처)

6) 윤휘탁, 2024, 「만주국의 서남변경지구 ‘치안숙정공작’과 열하성 변경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1, 7쪽.
7) 金宇豪, 2022, 「伪满洲国行政机构的傀儡性研究」, 延边大学 碩士學位論文, 9-10쪽.

이렇게 만주국은 열하성을 점령하여 판도로 편입한 것을 포함하여 4개의 행정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최고 지방행정구역 수를 대폭 늘렸다. 위의 [지도 1]과 같이 1933년 12월의 시점에서 만주제국의 성은 12개였다.

만주국이 입헌군주제로 개편된 다음 행정기구도 조정되었는데, 1934년 11월 9일 흥안총서는 蒙政部로 조정되었다. 1934년 10월 1일 만주국 정부는 새로운 ‘省官制’를 반포하고 10省 2특별시로 확대했다. 이때 만주국의 4개 성을 다시 분리하였다. 봉천성은 奉天省, 安東省, 錦州省으로 분할하고,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吉林省, 濱江省, 三江省, 間島省, 黑河省으로 분할하고, 열하성은 변경하지 않았다. 1936년 1월 무렵 만주국의 지방행정구역은 14개 성 및 2개 특별시로 구성되었다.⁸⁾

1937년에는 通化省과 牡丹江省을 신설했다. 그 이유는 통화 부근의 大栗子溝 일대에서 양질의 철과 석탄이 매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통화를 중공업 지구로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다. 또 牡丹江省은 국경지대의 중심지로 군사기지로나 행정 중심지로나 중요한 지역이었다. 1937년 7월에 하얼빈특별시는 보통시로 강등되었다. 1939년 東安省(密山, 虎林, 林口 지역)과 北安省(黑河, 五大蓮池, 嫩江 지역)이 신설되었다. 이 시기 만주국의 지방행정구역은 19개 성과 1개 특별시로 구분되었다.⁹⁾ 1942년 성의 명칭은 관동주, 헤이허성, 싱안베이성, 싱안둥성, 룡장성, 베이안성, 빈장성, 썬장성, 둥안성, 무단장성, 간도성, 지린성, 통화성, 안둥성, 쓰핑성, 평텐성, 진저우성, 싱안난성, 싱안시성, 러허성 등 20개로 나타난다.¹⁰⁾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도 성급 행정구역은 변동이 있었다. 1943년 10월 둥안성, 무단강성과 간도성을 東滿總省으로 병합하였다. 흥안 각 성은 興安總省으로 통합하였다. 1945년 6월 동만총성은 동만성과 간도성으로 분리되었다. 만주국 말기에

8) 金宇豪, 2022, 같은 논문, 13쪽. 1934년 10월 1일 만주국 정부는 ‘省官制’를 공포하고 12월 1일에 새로운 성제를 시행하였는데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 열하성 등 4성을 奉天, 安東, 錦州, 吉林, 間島, 濱江, 龍江, 黑河, 三江, 熱河 등 10성과 新京(長春), 하얼빈 2특별시로 분할하였다.

9) 金宇豪, 2022, 같은 논문, 16쪽.

10) 기시 도시히코 지음, 전경선 옮김, 2019, 『비주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 포스터·그림엽서·우표』, 소명출판, 8쪽.

만주국의 성급 행정기구에는 15개 성과 1개 특별시가 있었다.¹¹⁾ 이때에는 주요 성들이 주변의 성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런 점은 군사적 측면, 전쟁지원 측면의 필요가 강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만주국은 존속하는 14년 동안 최고 지방행정단위가 기본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성의 확대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된 바가 있으나, 전체 제국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핵심 3요소 중에서 영토에 대해 만주국도 그 영역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성급 지방행정기구는 행정권력이 행사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가적·제국적 차원에서도 국가 발전전략, 국가 방위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이라는 정규 행정구역과는 다른 군사적 관점의 경계와 구역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주국 통치체제에서 지방통치기구는 무엇보다도 만주국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주국의 최고지방행정구역인 省은 멸망 직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확대일로를 걸었다. 우선 그 정치적 목적은 초기에 省長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고 중앙부처의 관할권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었다. 또 그것은 안보와 국방 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만주국은 黑河省의 사명에 대해 “국경선 확보 공작과 토지 자원의 이용·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¹²⁾

둘째로 만주국의 성들은 대체로 중심지역 성들과 변경지역 성들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1940년 기준으로 주변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은 성은 興安東省, 北安省, 龍江省, 濱江省, 吉林省, 奉天省, 錦州省과 關東州(일본령)였다. 이 중에서 하얼빈특별시를 중간에 둔 濱江省, 新京특별시를 중간에 둔 길림성, 봉천시를 중간에 둔 봉천성과 大連이 있는 관동주와 같은 성들이 만주국의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변경지역의 성들은 대체로 상대하는 ‘주변국’이 있었다. 열하성과 같은

11) 金宇豪, 2022, 같은 논문, 19쪽.

12) 王志民 [共主編, 2002, 〈省政滙覽·黑河省篇〉(康德3年3月), 『偽滿洲國史料』 13,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81쪽.

서남부의 성들은 중화민국을 상대했고, 흥안성과 같은 북서부의 성들은 중화민국(내몽골 몽골세력 포함)과 외몽골을 상대했고, 흑하와 무단강성과 같은 북부와 동부의 성들은 소련을 상대했다. 조선과의 접경지역에도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은 국경지역의 의미도 있었지만, 일본제국의 식민지끼리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성들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만주국의 각지는 식량생산기지, 병참기지, 국경방어 중심 도시 등 여러 가지 성격을 갖는데, 특히 소련과의 접경지역, 몽골과의 접경지역, 중화민국과의 접경지역은 국경방어 중심도시의 성격을 갖는다. 이중 중화민국과 소련이 경쟁과 갈등의 강도와 빈도에서 확연히 크고 많기 때문에 성의 확대 과정에서는 이런 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 전선을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남방 전선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만주국은 성급 행정기구 차원에서도 전쟁국가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후에 통화성이 만주국 최후의 저항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전략자원 개발을 의도한 성의 설치가 지정학적 고려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조약의 체결과 영토의 증감

1) 국경과 완충지대의 형성

만주국이 변경지역에 성을 창설하여 그 지역의 개발과 안보력 강화를 도모하였다면, 그러한 국가적 힘은 국경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만주국은 일본제국의 위성국이자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의 증감도 일본제국의 동향과 연동되는 면이 있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은 일본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국가적 진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설정되지 않았다. 세계공황과 그에 수반한 극우민족주의 부상,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세계공황의 여파 속에서 만주에서는 관동군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인 관동군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장악한 만주에 '만주국'을 세우는 전략, 즉 만주를 독점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만주국 수립은 내외부의 강한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였다. 장쉐량의 동북군을 밀어낸 뒤에도 일본 관동군은 만주 각지의 저항에 직면하여 대규모 치안전쟁인 치안숙정공작을 벌여야 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일본의 만주 독점은 쉽게 국제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물론 여러 형태의 만주국 관련한 국제조약도 맺어졌는데 여기에도 만주국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장고봉 사건이나 노몬한 전투(할훈골 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경이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 점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만주 독점은 먼저 중화민국 정부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군사적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국제연맹에서 파견한 립튼 조사단의 보고서에서 관동군의 만주 장악을 침략행위로 판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함으로써 만주의 항배는 군사적 대결의 문제가 되었다. 동북군별이 관내로 패퇴하고 만주에 중대한 국가적 이해가 있다고 보는 국가에는 중화민국, 소련이 있었으니, 만주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32년 3월 건국에서 1945년 8월 일본제국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만주를 지배한 만주국은 독립국 지위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괴뢰국이라는 점에 큰 이견이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만주국이란 실질적으로 관동군이 지배하는 괴뢰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¹³⁾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은 국경지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중국, 대몽골 정책을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1933년 1월 일본은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동원하여 러허 사변(熱河事變)을 일으켰다. 이 전투는 만주국 남쪽 국경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벌인 것이다. 일본군은 3월에 러허성을 대부분 점령하고 중국군을 허베이성의 만리장성 안쪽으로 밀어냈다. 1933년 5월 31일 중국 톈진시 탕구구에서 일본제국과 중화민국이 휴전 협

13)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부산: 동아대학교출판부, 서문.

정을 맺었으니, 이것이 塘沽協定이다. 당시 중국 국민당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국민정부의 소극적 대책을 비판하는 입장이 강했지만, 장성 항전 이래 중국군의 연이은 패배와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해 국민정부는 일본과의 타협 정책으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였다.¹⁴⁾ 탕구 협정으로 중화민국과 일본군은 대략 장성선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이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산해관 이서의 만리장성 안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영역이 비무장화되어 만주국과 중화민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었다. 탕구 협정은 이후 1935년에 체결된 허잉친何應欽-우메즈梅津 협정과 친더쿤秦德純-도이하라土肥原 협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¹⁵⁾

한편 일본 정부는 1932년 3월 각의에서 「滿蒙문제 처리방침요강」을 결의하고 일본제국에서 갖는 만주국의 위상을 명시했다. 그 요점은 만몽을 일본제국의 소련과 중국에 대한 국방의 제일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¹⁶⁾ 중국과 소련에 대응하는 데는 많은 구간에서 중간에 몽골지역이 개재하고 있었다. 만주국에서는 역내의 몽골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興安省이라는 특별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중앙에 蒙政部나 興安局이라는 특별한 관청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1936년 5월에는 「몽골 민족 지도의 근본 방침」을 제정하여 일본인의 지도하에 만주국 관할 하의 몽골족을 대상으로 하여 ‘五族協和’와 대동단결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였다. 또한 외몽골의 몽골인들을 이끌어 만주국과의 친선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몽골족의 독립을 고취하여 만주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츰 新疆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동군에서는 熱河省 국경지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察哈爾省 등지에서 몽골인의 독립을 부추기는 공작을 활발하게 벌였다. 1936년 德王을 총재로 하는 ‘몽골군정부’가 성립된 것은 이러한 작업의 결과였다. 몽골군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蒙疆정권’으로 계승되었다.¹⁷⁾

14) 석미자, 2013, 「당고정전협정(塘沽停戰協定) 이후 국제정세와 직업외교관(職業外交官)의 항전 입장」, 『중국사연구』 83, 232쪽; 235쪽.

15) 레이 황 지음, 구범진 옮김, 2009, 『장제스蔣介石 일기를 읽다』, 푸른역사, 144쪽.

16) 尹輝鐸, 2013,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169쪽.

17) 尹輝鐸, 2013, 같은 책, 182쪽.

한편, 1905년 러일전쟁과 포스머스강화회의 이후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유라시아에서 그레이트게임이 종식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국으로 등장하였다.¹⁸⁾ 제정러시아가 소련으로 대체되고 만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중화민국이 소련과의 협상 상대였다. 1920년대 동북군벌 정권이 몇 차례 소련과 국경 교섭과 충돌을 벌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은 제정러시아와 청제국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¹⁹⁾ 만주국 수립 이후에 국경 교섭의 상대는 만주국과 소련이었지만, 만주국과 소련 사이에는 여러 차례 국경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국경 조약들의 내용과 현지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만주국'이 상당히 불완전한 국가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주국'은 자체의 국경 인식을 가지고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국경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한 국경 충돌이 적지 않았다. '만주국'이 있던 중국 동북 지역의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7,300km(동단은 4,300km, 서단은 3,000km)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다.²⁰⁾ 중화민국 수립 이래 중국측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조약'을 통해서 150여 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상실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에 중국 당국은 이러한 입장을 소련측에 밝혔다. 이후 오랜 협상을 거쳐서 2008년 10월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간 동부지역 국경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국경 획정을 마무리했다.

만주국 시기 만주를 통제하고 있던 만주국은 최근의 러시아와 중국이 맺은 것과 같은 국경조약을 맺지 못했고,²¹⁾ 경제적으로 변경을 지역을 개발하고 군사적

18) 김원수, 2015, 「러일전쟁과 외교혁명의 국제관계, 1904~1907」, 『군사』 97, 23쪽.

19) “러·중 국경은 1860년 베이징 조약, 1886년 노보키렘스크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861년 한카 의정서, 1886년 하바롭스크 의정서 및 1911년 치치하얼 협약, 그리고 관련 별첨 문건들은 현재의 러·중 동부국경(몽골 접경지에서 북한 접경지까지)을 확인해 주는 법적 근거이다.”(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지음, 성종환 옮김, 2010,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동북아 역사재단, 63쪽)

20) 倪健民·宋宜昌 主編, 1997, 『國家地理:從地理版圖到文化版圖歷史考察(下冊)』, 北京:中國國際廣播出版社, 1412쪽. 한편 러시아 연구자는 “양국 간 국경선은 총 4200km로, 그중 3600km는 강과 호수를 통과한다.”고 밝히고 있다.(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지음, 성종환 옮김, 2010, 같은 책, 72쪽)

인 차원에서 국경방어에 진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지적된 바이지만, 만주국의 거시적인 변경 개발과 국경 수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북변진흥계획' 추진과 국경의 내적 변화

'만주국'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국가였지만, 존립하는 동안 국가로서의 내실을 채우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앞 절에서 살펴본 국경 확정은 그러한 국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국경이 확정되었다고 국가 안전이 자동적으로 튼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국경지대에는 경제적 측면의 개발과 충분한 교통망과 보급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1935년 만주국에서는 법정화폐를 발행해 1:1.25 비율로 원래의 지폐를 회수하였다. 또 1937년 12월 1일에는 만주국에서 치외법권이 철폐되어 종래의 금융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9년 노몬한 전투를 겪으면서 만주국에서는 국경 경비의 강화, '北邊振興計劃' 실시 등이 거론되었다. '북변진흥계획'은 노몬한전투 이후의 대소련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939년 제출된 '北邊振興計劃'은 1937년 개시된 '산업개발 5년 계획'과 1936년 제정된 '백만호 이민 계획'과 함께 만주국의 3대 기본 국책이라고 일컬어진다. 9·18사변 후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진'을 모색하여 '소만 국경'의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실제로 국경충돌이 일어나자, 1939년 5월 11일 만주국은 '국경건설 실시요강'을 제출하였는데, 1939년 5월 15일에는 '북변진흥 3년 계획'으로 개칭하여 공표하였고 6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다.

북변은 만주의 동부와 동북부, 내몽골 동부 지역을 지칭한다. 북변은 新京을 중심으로 間島省의 琿春縣에서 시작하여 소련 국경지대에 따라 黑河省의 漠河縣

21) 그렇지만 1930년대 중반 소련이 만철에 중동철로를 매각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련과의 외교적, 경제적 교섭 속에서 만주국이 사실상 소련의 승인을 받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까지 17개 현을 포함한다. 면적은 길이 2,400km, 대략 넓이 40~50km의 지대로, 후에 계획의 필요에 따라 지역 범위는 확대되었다. 이는 間島省, 牡丹江省, 三江省, 黑河省, 興安北省과 후에 설정된 東安省과 北安省 등 모두 7개의 변경 省에 해당한다.²²⁾ 또한 ‘북변’은 ‘북변’의 국방, 군사 건설과 경제건설을 포함하는 대소 ‘북진’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

1938년 이전 일본의 만주에서의 투자는 남만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북만주, 특히 변경지역의 성들에 대해서는 군사적 고려에 따라 경제활동에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²³⁾ 1934년부터 일본 관동군은 소만 국경지대에 대규모 진지공사를 벌여 대소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들 진지들은 소련 국경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고 소련이 설치한 진지를 참조하여 대치하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대략 1938년에 마무리되었다. 이들 군사기지는 琿春에서 漠河縣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이들을 연결하는 ‘군용도로’를 건설하여 ‘국경지대의 제1선 방면’이라고 불렀다. 후방의 군사기지도 똑같이 도로를 건설하여 연결하면서 ‘특수도로’라고 일컬었다. 이는 ‘국경지대의 제2선 방면’이라고 통칭하였다.²⁴⁾ ‘제2선 방면’의 후방에는 ‘개척단 근거지’를 마련하고 ‘移民도로’로 이들을 연결하였다. 개척단 근거지와 이민도로는 ‘국경지대의 제3선 방면’이라고 일컬었다. 제1선 방면은 소련과의 최전선이었고, 제2선 방면은 ‘총력전’ 계획, 병력운용 계획을 세우고 병력이 집중되는 지대였다. 제3선 방면은 병력을 보충하고 생산에 종사하는 지대였다. 이들 3개의 국경지대는 소련과의 국경을 따라 대군사기지 지역을 구성했으며, 이들 대군사기지 지역이 ‘북변지방’이었다.²⁵⁾

도시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북변지방’에서 특기할 것은 목단강, 가목사, 동녕, 치치하얼 등 ‘국경 군사전략’과 ‘만주 이민 계획’ 대상 도시 건설이다. “1934년 이후 동녕을 중심으로 한 목단강-수분하 유역은 일본 당국에 의해 ‘북변 진흥 계

22) 张宁, 2021, 「伪满洲国“北边振兴计划”研究」, 长春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10쪽.

23) 张宁, 2021, 같은 논문, 12쪽.

24) 张宁, 2021, 같은 논문, 13쪽.

25) 张宁, 2021, 같은 논문, 14쪽.

획', '대소 방어' 핵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²⁶⁾ 일본은 동녕에 극동 최대의 지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였고 1940년대 초에 동녕의 인구는 10만을 넘었다.

일본은 만주국 내에서, 특히 '북변지방'에서 군사시설을 구축하면서 또한 영토 방어를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대외적으로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5년 기한의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같은 해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소련과의 중립조약을 활용하여 소련의 대일 전쟁 참전을 저지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다방면에서 소련과의 대결을 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²⁷⁾

사실 일본은 1938년 초까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개 사단을 온존시키는 한편 나머지 육군 병력을 중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일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었고 1년 안에 원정을 마무리지을 생각이었지만, 타이얼쥬에서 중국군에 고전하는 등 예상 밖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그 계획이 어긋나버렸다.²⁸⁾ 또 1940년 3월엔 일본군 지휘부는 일본군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1943년에 점령지를 양쯔강 삼각주와 내몽골 일부 지역으로 제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서부 선전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일본군의 철수 계획은 보류되었다.²⁹⁾ 그 대신 일본군 대본영은 장제스를 거대한 포위망에 몰아넣기 위해 인도차이나와 버마를 점령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노몬한 전투에서의 패배도 한몫을 거들었을 것이다.

남방 전선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동군의 정예 부대들은 속속 차출되었고, 1944년 말에 관동군은 크게 약화되었다. 1945년에 접어들자, 관동군의 절반 이상이 남방 전선에 배치되었다. “그러자 일본 대본영에서는 관동군의 수비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大連-新京-圖們을 연결하는 삼각선까지 남하시켜 만주국의 4분의 3을 방위 범위에서 방기해 버렸다.”³⁰⁾ 사실 1944년 가을 관동군은 소련이 일본과 전

26) 취샤오판 지음, 박우 옮김, 2016, 『중국동북지역 도시사 연구: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과천시: 진인진, 383쪽.

27) 尹輝鐸, 2013, 같은 책, 135쪽.

28) 레이 황 지음, 구범진 옮김, 2009, 같은 책, 215쪽.

29) 레이 황 지음, 구범진 옮김, 2009, 같은 책, 216쪽.

쟁에 돌입한다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관동군은 소련군이 참전한다면 사령부를 조선 국경 가까이 있는 通化로 이전하고 압록강을 경계로 ‘皇土’인 조선을 방어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³¹⁾

결국 만주국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중일전쟁과 미일태평양전쟁의 이중전쟁이었고, 직접 만주국의 소멸을 불러온 것은 소련군의 참전이였다. 미국과의 협의 위에서 소련은 소일중립조약을 깨고 1945년 8월 6일 시베리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 지켜지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일본이 미국, 영국, 소련을 상대로 패권 다툼을 벌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1939년의 ‘북변진흥계획’도 실효성이 없었고, ‘관동군 70만 대군’도 허망한 것이었다. 다만 이것들 하나하나 연 관되어 있으므로 그 연관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국가의 변경 요새와 울타리

1. 국경 요새 축성 실태

변경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조약, 국내 행정체제와 정책, 군사 요새와 세관 등 국경관리 체제 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국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태를 보여주는 변경 요새를 거론해 보기로 하겠다.³²⁾ 일본군은 만주, 소련, 몽골, 조선, 중국화북의 4,700리 국경선

30) 尹輝鐸, 2013, 같은 책, 432쪽.

31) 尹輝鐸, 2013, 같은 책, 126쪽.

32) 중국학계의 연구의 일단은 다음과 같다. 段光达, 沈一民, 谢德宝, 2010, 「国内关于日本关东军要塞研究述评」, 『学术交流』. 邵帅, 2019, 「日本关东军对苏防御作战要塞研究」, 辽宁大学 硕士学位论文. 马拖骝, 2015, 「二战最后一仗: 日本关东军虎头要塞覆灭记」, 『党的生活(黑龙江)』. 俞培珍, 2015, 「关东军在“满”苏东部国境要塞的驻军及战略研究」, 哈尔滨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车霁虹, 2012, 「神秘的关东军要塞」, 『百科知识』. 徐占江, 滕建华, 2010, 「日本关东军要塞初探」, 『东北史地』. 车霁虹, 2008, 「东北边境日本关东军要塞的历史与现状考察」, 『北方文物』.

중에서 오직 소련 쪽에 대해서만 요새를 건설하고 병력을 대거 주둔시키고 대형 대포를 배치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이와 관련된 개요이다. 향후 기존 연구와 사료를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서술할 것이다.

일본이 만주 전역을 점령하자, 1931년 11월 소련측은 바이칼 이동의 특별원동군의 실력을 강화하였다. 다음해 4월에 몇몇 변경지역의 방위를 강화하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1933년 10월 일본군 참모본부 작전과장인 스즈키 요리미치(鈴木率道) 대좌는 국경지대를 시찰한 후에 '북진' 계획과 배합하여 변경지구에 군사요새를 구축할 것을 기획하였다. 관동군은 비적 토벌에 특화된 병력 배치로는 만주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만주국의 정책을 대소 정보수집과 대응 계획으로 전환하였다.

쇼와 시대의 육군 파벌 중에서 황도파였던 스즈키는 통제파 우두머리였던 도조 히데키와 대립하고 있었다. 만주사변이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에 소련은 극동에서 군비확장에 열을 올렸는데, 청년 장교들은 육군의 군비확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1931년 12월 육군대신으로 취임한 황도파인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는 청년 장교들의 기대와는 달리 군비확장보다는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었다.³³⁾ 만주의 관동군은 황도파의 반소련 노선을 견지하고 소련에 대한 공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의 구체적인 對蘇 작전계획은 1932년 여름에 관동군이 제정한 1933년 '年度 작전계획'이었다. 그 내용은 전장을 소련 경내로 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동부 정면에서 보로실로프(Voroshilov, 1935~57년, 현재의 우수리스크)를 목표로 공세를 벌여 블라디보스톡 주변의 지상병력과 항공병력을 제거한다. 이후 서부 정면으로 공세를 벌여 소련군이 결전에 나서도록 하여 소멸시킨다. 최후로 바이칼호 지역을 점령한다. 일본군의 동부정면의 제1기 회전, 서부 정면의 제2기 회전, 그리고 바이칼호 지역 진력이라는 이 작전방안은 1936년도의 작전계획까지 이어졌다.³⁴⁾

33) 이정용, 2008, 「1930년대 일본 육군의 파벌 항쟁」, 『한일군사문화연구』 6, 한일군사문화학회, 275쪽.

34)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哈爾濱市社會科學院重點課題) 日本關東軍虎頭要塞』, 呼倫貝爾: 內蒙古文化出版社, 12쪽.

이후에도 일본군의 반격 계획은 소련군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되지 못했다.

한편, 일본 관동군의 방어요새 건설 작업은 1932년 이후 착착 추진되었다. 관동군 黑河 정보기관은 소련군이 1932년 여름부터 변경지역에 군사시설을 벌이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군은 관련 정보를 보강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 5월 12일 관동군사령관 히사카리 다카시(菱刈隆) 대장은 ‘關作命 제589호 명령’(축성계획)에 서명하였다. 같은 날 관동군 참모장 니시오 토시조(西尾壽造) 中將은 이 명령에 근거하여 ‘진지 구축과 경편 철로에 필요한 노동자, 器材, 경비 등 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관동군은 소만 국경에 요새공사를 정식으로 시작하였다.³⁵⁾

요새의 수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3기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1934년에서 1940년까지 제1단계, 이미 구축한 요새를 확충하고 보완하는 작업 외에 세 개의 요새를 쌓은 제2단계였다. 일본군의 요새 구축은 태평양전쟁 실패 후 3단계로 들어서서 방어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관동군이 구축한 요새방어선은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독일의 지크프리트선(SiegfriedLine)과 같이 단순한 군사공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군사일체화), 경제(자원 개발약탈), 군사(국방설비건설), 식민(대규모 이민)을 일체로 하는 종합적인 국경군사기지 건설사업이었다.

9·18사변 후 일본참모본부는 ‘일본관동군對蘇작전요강’을 제정하여 소만변경에 동부, 동북부, 북부와 서북부의 4개 작전구를 설정하고, 1934년에서 1945년까지 3기로 나누어 남쪽으로 훈춘에서 북쪽으로 내몽골 하이라얼에 이르는 약 5,000킬로미터의 변경선상에 비밀리에 17곳의 군사요새군을 건설하였다.³⁶⁾ 국경요새의 건설 경비는 1934년 8월에서 제1차로 동녕, 하이랄 등 4곳에 617만 元(만주

35)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같은 책, 15쪽.

36) 邵帥, 2019, 「日本矣東軍對蘇防御作戰要塞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34-57쪽. ① 동부 정면: 虎頭要塞, 廟嶺要塞, 半截河要塞, 觀月台要塞, 綏芬河要塞, 鹿鳴台要塞, 東寧要塞, 琿春(五家子)要塞 등 8곳, ② 북부 정면: 鳳翔要塞와 富錦要塞 등 2곳, ③ 동북부 정면: 孫吳要塞(勝山=霍爾莫津要塞), 瑛琿要塞, 黑河要塞와 法別拉要塞 등 4곳, ④ 서부 정면: 海拉尔要塞, 阿爾山要塞, 烏奴耳(烏諾爾)要塞 등 3곳.

국폐)을 지급한 것부터 1945년 일본군이 항복하기 전에 최후로 지급한 1.3억 원까지 12년간 총 4.591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년 평균 3826.4만 원에 달한다.³⁷⁾



일본 관동군은 1944년말까지 소만 국경지역에 琿春의 五家子에서 시작하여 북쪽과 서쪽으로 흑하와 하이탈까지 14곳의 요새를 건설하고 요새없이 상비 부대가 주둔하는 야전진지를 설치하였다. 계속 각 국경요새를 독립야전군 진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수비부대를 배치하였다. 1944년에 이르러 각 요새의 전체 수용 능력은 보병 260개 대대와 포병 약 300개 중대에 달하였다. 1945년 국경요새 공정의 3단계에 일본 관동군은 “국경을 요새화하고 전 만주국을 요새화

37)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같은 책, 26쪽.

한다”고 하였다. 중점은 内地 2線(대흥안령 지역과 같이)과 주요 도시의 방위 축성이었다. 이에 따르면 중점은 만주 정면의 三江 지구, 송화강 우안의 富錦과 烏爾古力山 부근 및 소흥안령 동측의 鳳翔 및 하이랄 2線, 牙克石 등지에서 진행되는 야전진지 건설에 있었다.³⁸⁾ 이중 통화의 진지는 만주국의 최후 저항 거점을 방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설정되었다.

세 시기에 걸친 국경 요새의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⁹⁾ 东宁, 绥芬河, 半截河, 虎头, 霍尔漠津, 瑗琿, 黑河, 海拉尔 등지는 제1기 공정에 속한다. 이들 요새는 1934년에서 시작하여 1937년에 완공되었다. 편성번호는 제1에서 제8까지로 국경 수비대가 주둔한다. 제2기 공정은 五家子, 鹿鸣台, 观月台, 法别拉가 포함되는데 1939년에 완공되었다. 차례대로 제9에서 제13이라는 번호로 편성되었다. 제3기 공정은 송화강 우안의 富錦, 소흥안령 동측의 凤翔 등지에 야전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凤翔은 제14 국경수비대가 편성되었다.⁴⁰⁾ 이들 요새군을 당시에 일본군은 ‘동방 마지노방어선’이라고 불렀다. 동녕요새는 ‘만-몽’, ‘중-소’ 변경을 따라 구축된 17개의 관동군 요새 중에서 종합적인 규모가 최대인 요새였다.⁴¹⁾

동녕요새는 1934년 2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만주국이 망할 때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동녕은 绥芬河를 경계로 소련과 접하고 있는데 국경을 넘으면 곧 우스리스크시에 이르고 거기에서 철도와 도로로 블라디보스톡과 연결된다. 이것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교통선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은 동녕에 대규모로 병력을 배치하고 견고한 군사요새를 구축하였다. 방대한 요새군은 작전구, 보전구, 군수지원체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요새군의 정면은 넓이가 110여 km, 중심이 70여 km로 모두 비행장 10개, 군용도로 1,957km, 철로 400여 km, 공사시설 400여 곳, 30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탄약고 84곳, 야전포진지 45곳, 창고 400여 곳, 병기창 1개, 육군의원 4개, 동물의원 6개가 있었다. 가장 많을 때

38)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같은 책, 18-19쪽.

39) 刘玉民, 2013, 「侵华日军“满”苏国境阵地军事要塞劳工问题概述」, 『黑龙江史志』 5월, 92쪽.

40) 杨柏林, 2002, 「孙吴胜山要塞-日军侵华遗址」, 『黑河学刊』 100-5, 93쪽.

41) 바이두(<http://baike.baidu.com/view/260556.htm>)

는 병력이 관동군 4개 사단, 1개 여단, 2개 수비연대 등 모두 13만여 명에 이르렀다.⁴²⁾

海拉爾요새가 있는 하이랄은 대흥안령 이서의 홀른부이르 초원의 중심도시이다. 하이랄은 滿洲里, 黑山頭, 에르구나 강 및 노몬한 일대 만-몽 국경에서 18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곳은 관동군이 작성한 對蘇 공세 작전계획에서 중요한 요충지이다. 하이랄요새는 도시를 둘러싼 비교적 높은 5개의 山丘에 쌓은 5개의 저항 추축부 진지와 10개의 보조진지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21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한다. 5개의 주진지는 敖包山, 河南臺, 松山, 東櫻臺, 伊東臺이다. 전체 요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데, 제2 지구가 핵심으로 5개 지구가 상호 포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관동군은 탱크에 대한 방어를 특별히 중시하여 대량의 탱크 방어 장애물을 설치하였다.⁴³⁾ 하이랄요새의 구축 경비는 매년 130만 元 이상 소요되었다.

1945년 8월 8일 소련 36집단군이 하이랄요새를 공격할 때 항공기와 대포의 우세를 이용하여 하이랄요새에 9,000톤의 탄약을 쏟아부었다. 일본군 약 8,000명은 영구시설에 의지하여 포화가 집중될 때는 지하시설에 몸을 피하였다. 8월 10일 일본군은 새벽에 河南臺 진지를 지키는 보병 약 1,500명을 동원하여 탱크의 엄호 하에 소련군에게 반격하여 소련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8월 16일까지 소련군은 다양한 병종으로 전투지역을 포위하여 일본군에게 맹공을 가하였다. 일본군은 지하와 지상으로 연결된 요새 구조를 이용하여 진지를 사수하였다. 13일에 소련군은 전체 전선을 돌파하여 진지 내의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16일까지도 소련군은 여전히 요새 각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8월 16일 밤에 일본군은 투항 결정을 내렸다. 8월 17일에 쌍방은 투항 협상을 벌였다. 8월 18일 일본군은 지하갱도에서 나와 투항하였다. 松山 진지와 伊東臺 진지는 투항 명령을 받지 못하였고 8월 20일 새벽까지 전투가 벌어졌다. 10여 일의 전투에서 소련군은 1,101명이 전사하

42) 刘则刚, 2008, 「侵华日军东北要塞揭秘」, 『兰台内外』 2월, 55쪽.

43) 徐占江·趙玉霞·白志偉·徐鑫·王福華 主編, 2012, 『日本關東軍海拉爾要塞』, 海拉爾: 內蒙古文化出版社, 2-3쪽.

여 하루 평균 120여 명이 희생되었다. 부상자는 3,000여 명에 달하였다.⁴⁴⁾

만주국 시기에 일본 관동군은 흑룡강 연선의 소만 국경에 1,250개의 지하공사와 지하창고 등의 군사시설을 건축하였고, ‘흑하성’에는 대형 병기창 2곳, 각종 탄약고 500여 곳, 병영 60곳, 비행장 13개를 지었다. 일본 관동군의 흑하요새는 4개 작전구역과 14곳의 국경진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흑하요새의 북부 정면 戰區는 아이후이현(愛輝縣)과 쑤우현(孫吳縣) 경내에 집중되어 있다. 진지 정면의 넓이는 100km에 달하며 영구적인 진지 16곳, 시멘트 철근으로 건축한 야전진지 30여 곳이 있다. 여기에는 제4 국경진지 孫吳霍爾莫要塞(勝山要塞), 제6 국경진지 西崗子陣地(愛輝要塞), 제7 국경진지(黑河要塞), 제13 국경진지(法別拉要塞)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진지는 西崗子陣地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 관동군 제4군의 작전구역에 속한다.⁴⁵⁾ 이 요새도 1945년 8월 9일 흑하의 건너편에 주둔하던 소련 원동 홍기 제2 집단군의 공격을 받았다. 소련군은 이날 항공기와 아무르 함대의 엄호 하에 일본군을 공격했고, 전투 끝에 일본군은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

17개의 국경 요새 중에서 TV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비교적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요새는 호두요새였다. 호두요새는 흑룡강성 虎林市 虎頭鎮 주변의 完達山 여맥 구릉에 있다. 그 서쪽은 火石山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우수리강에 이르러 러시아의 이만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은 邊連子山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虎北山에 이른다. 이 요새는 러시아의 군사도시 달네레첸스크시(Дальнереченск) 및 원동대철로와 우수리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블로톡 사이의 800km의 철로선에서 호두 일대에서만 시베리아 철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동철로의 목구멍을 누르고 있어서 그 전략적 지위는 매우 높다.⁴⁶⁾ 이 일대의 수10 킬로미터 반경 내에 크고 작은 10여 개의 요새가 있었다. 주진지인 猛虎山은 中맹호산, 東맹호산, 西맹호산의 3개 구릉으로 이루어져

44) 徐占江·趙玉霞·白志偉·徐鑫·王福華 主編, 2012, 같은 책, 4-5쪽.

45) 梅竹, 2003, 「永远的罪证--记黑河日军侵华要塞遗址」, 『初中生学习』 6월, 22-23쪽.

46)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같은 책, 1쪽.

있고, 주위는 늪지대다. 中맹호산은 일본군 제4 국경수비대의 사령부 소재지였다.

1934년 6월 호두요새 공사는 동녕, 수분하와 하이탈요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호두요새는 1938년 봄에 완공되었다. 호두요새의 각 진지는 소련군 비행기의 폭격과 대구경 중화포의 포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하공사는 모두 산의 하부를 굴착하였다. 모든 지하시설의 정상부는 시멘트로 보강하였고 주요 부분의 두께는 3m에 달한다. 소련군 탱크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진지 주위에는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호두요새 臺地에는 철근콘크리트와 강철빔으로 탱크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1939년 3월 관동군은 제4국경수비대를 설립하였고 초기에 병력은 8,000명에 이르렀는데, 1941년은 호두국경수비대 편제와 장비의 전성기였다. 관동군은 호두요새를 1934년에 기공하여 1939년에 완공하면서 수억 위안을 소모하고 노동력 10여 만 명을 징발하였다. 노동력은 중국인 노동자와 포로들로 충당되었다. 적어도 1만 2,000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소련군 진격 전에 호두요새를 지키던 관동군 제15 국경수비대에는 1,400명과 소량의 장비, 탄약이 있었다.

이 견고한 호두 요새에 대한 소련군의 공격은 1945년 8월 9일 0시에 시작되었다. 소련원동 제1방면군 제35집단군이 우수리강을 건너 虎林과 虎頭의 도로와 철로 교통을 절단하였다. 이만 부근 군사기지의 소련군 포병부대는 맹렬하게 호두요새를 포격하였고, 동시에 소련 공군도 호두요새 진지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하였다. 8월 10일 소련군은 虎頭鎮을 점령하였다. 8월 12~19일에 소련군은 계속하여 일본군 포병 진지를 철거하고 호두요새의 모든 制高点을 점령하였다. 일본군 수비대는 이때 반격 능력을 상실하고 요새 지하에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8월 18일 소련군은 대표를 보내 일본군의 투항과 항복을 권고하였지만, 일본군 수비대는 항복을 권고하는 대표를 살해하였다. 소련군은 8월 19일에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소련군은 일본군 수비대 본부, 보병대 본부, 보병포중대, 포병대 본부를 격파하고 일본군을 전부 섬멸하였다. 8월 21일 西猛虎山 보병 제3중대가 섬멸되었고, 26일에는 虎驢山 보병 1중대가 섬멸되었다.⁴⁷⁾

47)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같은 책, 5쪽.

이로써 26일에 소련군은 호두요새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1,387명의 일본군과 일본개척민과 군속 중에서 53명만 도주하여 생명을 부지하였다. 17일 동안의 ‘호두 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 1,387명이 사망한 데 반해 493명의 소련군이 사망하였다. 화력이 우세한 소련군도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⁴⁸⁾ 호두요새는 소련군이 최후로 승리한 곳이라고 칭해진다.

소만 국경지역의 17개 대규모 요새의 건설과 훼손 과정을 보면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동원한 요새 체계의 구축도 소련군의 대규모 참전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대부분 고전하다가 요새가 허물어졌다. 사실 1945년 8월 무렵의 관동군은 전성기의 관동군의 모습과는 달리 병력 숫자도 30만 운운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었고 만주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관동군이 소련군의 대규모 공격을 예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2. 노몬한 전투(할힌골 전투)의 영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군은 소련군에 대응하는 진지공사를 1934년에서 1938년 사이에 대략 마무리하였는데, 17개의 관동군 요새는 이후에도 건설되거나 보강되었다. 당시 일본 관동군은 소련군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했다. 만주국과 소련·몽골은 5천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련측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 대해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와 연동된 조치들이 취해졌다. 1937년 8월 21일에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했고, 9월 이후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대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동시켰다. 이 와중에 관동군은 소련군과 두 번의 전투를 벌였고 그 두 전투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첫 번째 관동군과 소련군의 사단급 충돌은 1938년 7월 29일의 일부터 벌어진 장고봉 전투(하산호 전투)였다. 1938년 7월 9일 10여 명의 소련군이 장고봉에 나타나 진지공사를 시작하였고 7월 11일 일본군이 이를 인지하였다. 7월 15일자로 부

48) 韩冬云, 于建章, 2014, 「侵华日军虎头要塞覆灭记」, 『奋斗』 2014-9, 59쪽.

임한 신임 조선군 19사단 사단장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郎) 중장이 주도하여 일본군이 7월 29일에 야습을 감행하고 소련군이 8월 1일부터 반격해 와서 11월 정오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벌어진 사건이 장고봉 전투의 내역이다. 이 전투에 일본군은 6,814명을 투입하였고 소련군은 22,950명을 투입하였다.⁴⁹⁾ 이 사건에서도 일본군의 군사모험주의적 성격이 드러났는데, 일본측에서는 이것의 위험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경 충돌은 만주국과 관동군이 왜 국경요새를 건설했는가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국지전은 1939년 5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만주국과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경지대인 노몬한(할힌골)에서 벌어진 일본 관동군·만주군, 소련군·몽골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다. 1937년 6월 30일 건자차도에서도 관동군과 소련군은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지만, 대규모 충돌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노몬한 전투는 그 양상이 크게 달랐다. 1937년 이래 일본군과 소련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은 매우 높았다. 노몬한 전투 당시 양측은 수만 명의 보병과 수백 대의 전차와 항공기를 동원해 총력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소련군의 병력과 작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소련군의 작전과 현대식 무기에 밀려 큰 패배를 당했다.⁵⁰⁾ 이 전투의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관동군은 자신들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보완하지 못했다. 앨빈 쿡스(Alvin Coox)에 의하면, 노몬한 전투는 일본군에게 러시아 공포증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은 '북진' 노선을 버리고 '남진'을 감행하여 미국과의 전쟁으로 치달았다. 일본은 1941년 파시스트 동맹인 독일군의 러시아 공격에 동참하지 않았고, 소련은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다.⁵¹⁾

종합적으로 볼 때 만주국의 군사진지 구축, 노몬한 전투 패배, 북변진흥계획 추진은 '북진' 구상에서 만주국 방어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만주국과 소련의 국경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이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49) 김영숙, 2022, 「조선·만주국·소련의 접경, 장고봉-장고봉사건의 군사 외교적 고찰」, 『성대사림』 80, 254쪽; 259쪽.

50) 오미영, 2023, 「할힌골 전투에 대한 남·북한 역사 인식 비교」, 『몽골학』 72, 154-155쪽.

51) 한석정, 2009, 「러일, 만몽, 몽몽의 대결-노몬한(할힌골) 전투 70주년 기념 학회 참관기」, 『만주연구』 9, 243쪽.

모험주의적인 지휘관이 국경선을 지키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시 일본과 소련 간의 국경 충돌은 1937년 113회, 1938년에 166회”에 달했다.⁵²⁾ 노몬한 전투는 이런 충돌 중에서 국지전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150여만의 병력으로 만주와 조선에 ‘滿洲戰役’(遠東戰役)을 전개하였다. ‘황군의 꽃’이라는 관동군은 당시에 전성기에 비해서 턱없이 병력수가 줄어 있었고, 9월 5일에 관동군사령부는 무장해제를 당했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관동군은 소련군을 막아낼 수 없었다. 예컨대 하이라얼에 진격한 소련군 제36집단군은 3.5만에서 4만의 병력으로 7,500~8,000명이 지키는 하이라얼 요새를 공격했다.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8월 18일과 20일에 항복했다. 그동안 일본군은 4,800~5000명이 포로가 되고 2,500~2,700명이 전사하였다.⁵³⁾ 또 虎頭전투는 1945년 8월 9일에 시작되어 8월 26일에 끝났다. 요새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53명의 탈주자와 포로 이외에 모두 전사하였다. 이 전투는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뒤로도 11일이나 이어졌다. 그래서 虎頭요새는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지’라고 불리기도 한다.⁵⁴⁾

1945년 8월 8일 선전포고 후 소련군은 만주와 조선 전역에 걸쳐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이었다. 소련측은 일본과는 1941년 중립조약을 맺은 바가 있었다. 이 중립조약은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쟁에 일본이 개입하지 않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군은 소련과의 조약에 얽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1939년 노몬한 전투의 패배는 관동군에게는 ‘러시아 공포증’을 불러왔고 일본제국에게는 ‘남진’ 전략 추진과 소련에 대한 현상유지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52) 오미영, 2023, 같은 글, 152쪽.

53) 李·蒙赫达贲, 2006, 「关于侵华日军海拉尔要塞遗址教育功能的思考」, 『呼伦贝尔学院学报』 14-3, 26쪽.

54) 许乐, 2019, 「访二战终结地 忆峥嵘抗战史—侵华日军虎头要塞博物馆巡礼」, 『党的生活(黑龙江)』 11월, 72쪽.

IV. 맺음말

20세기 전반기 만주는 기본적으로 군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07년 ‘동삼성’이 설치되고 만주의 군정체제는 형식상 민정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군사부문이 여전히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군벌시대에는 동북군벌 정권이 만주에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만주 정권의 ‘영역’과 ‘국경’이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1930년대 만주의 ‘근대국가’ 수립이 만주 일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932년 ‘만주국’이 수립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는데 주목한 점의 하나는 최외방행정기구인 ‘省’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주국 건국 시기에 4개의 성으로 출발한 만주국은 각 시기의 필요에 따라 성의 숫자를 늘렸다. 첫째로 초기에 너무나 막강한 성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성의 증설이 주목된다. 둘째로 만주국의 성은 대체로 중심지역 성들과 변경지역 성들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변경지역의 성들은 ‘주변국’을 마주하고 있었다. 각 방향의 성들은 상대하는 주변국의 성격에 따라 역점 사업의 내용이 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

만주국의 정책들 중에서 1939년 제출된 ‘北邊振興計劃’은 1937년 개시된 ‘산업개발 5년 계획’과 1936년 제정된 ‘백만호 이민 계획’과 함께 만주국의 3대 기본국책이라고 일컬어진다. ‘북경진흥계획’은 琿春에서 漠河縣까지 북부변경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의 목표는 ‘소련 대응’이었다. 만주국의 입장에서 소련은 만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막강한 상대였고, 그에 따라 관동군은 17개의 대규모 국경 요새를 건립했다. 이러한 국경 요새의 존재는 만주국이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한 전쟁국가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소련 대응에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주국의 변경지역 중에서 북부변경은 거대한 요새 지역이었다. 만주국 시기의 변경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경 지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방위전략상의 역할을 고

려해야 한다.

만주국이 수립되고 신경과 심양, 하얼빈 등지에서는 다양한 산업, 중화학공업까지 발전하였다. 일본의 만주에 대한 투자는 만주에서 철도 구축, 대형 근대도시 건설, 대규모 산업기반 구축 등을 동반하였다. 이것은 식민지적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의 양면을 갖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 만주의 곡창지대는 제국 일본의 식량생산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변경지역의 성들은 주변국과의 전쟁 대비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소련과 접하고 있는 만주국의 동부, 북부, 서북부 지역은 노몬한 전투의 패배의 충격 속에서 '북변진흥계획'에 따른 국경요새 네트워크 구축의 현장이 되었다. 아 이러니하게도 이들 대규모 군사요새들은 1945년 8월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 속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그만큼 관동군의 주력이 남부 전선으로 빠져나가고 관동군은 만주국마저도 방어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만주국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중심부와 변경지역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權哲男, 2012, 『偽滿洲國農業經濟分析』, 延吉: 延邊大學校出版社
- 기시 도시히코 지음, 전경선 옮김, 2019,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 포스터·그림엽서·우표』, 소명출판
- 레이 황 지음, 구범진 옮김, 2009, 『장제스蔣介石 일기를 읽다』, 푸른역사
-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지음, 성종환 옮김, 2010,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동북아역사재단
- 徐占江·孫永林·李守軍, 2014, 『(哈爾濱市社會科學院重點課題) 日本關東軍虎頭要塞』, 呼倫貝爾: 內蒙古文化出版社
- 徐占江·趙玉霞·白志偉·徐鑫·王福華 主編, 2012, 『日本關東軍海拉爾要塞』, 海拉爾: 內蒙古文化出版社
-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
- 倪健民·宋宜昌 主編, 1997, 『國家地理: 從地理版圖到文化版圖歷史考察(下冊)』,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해주 옮김, 2009, 『일본 제국의 교두보: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어문학사
- 王志民 [共] 主編, 2002, 『偽滿洲國史料』 1-33,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 윤휘탁, 1996, 『日帝下「滿洲國」研究: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一潮閣
- 尹輝鐸, 2013,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
- 취샤오판 지음, 박우 옮김, 2016, 『중국동북지역 도시사 연구: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과학사: 진인진
-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부산: 동아대학교출판부
- 高媛·王潮·王浩然·李晓蕾, 2016, 「文物展示利用条件评估方法探讨--以侵华日军东北要塞(胜山要塞)为例」, 「遗产与保护研究」 2016-3
- 김경춘, 1986, 「두만강하유역에 있어서의 국경분쟁-장고봉(長鼓峰) (소칭 Озеро Хасаи) 사건 중심으로」, 『동국사학』 19,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원
- 김영숙, 2022, 「조선·만주국·소련의 접경, 장고봉-장고봉사건의 군사 외교적 고찰」, 『(성대)사림』 80, 수선사학회
- 金宇豪, 2022, 「伪滿洲国行政机构的傀儡性研究」, 延边大学 碩士學位論文
- 김원수, 2015, 「러일전쟁과 외교혁명의 국제관계, 1904-1907」, 『군사』 97
- 김원수, 2013,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만주연구』 16, 만주학회

- 段光达·沈一民·谢德宝, 2008, 「侵华日军富锦要塞群中国劳工调查报告」, 『东北史地』 2008-3
- 段光达·沈一民·谢德宝, 2009, 「侵华日军富锦要塞劳工问题浅析」, 『黑龙江省社会主义学院学报』
- 段光达·沈一民·谢德宝, 2010, 「国内关于日本关东军要塞研究述评」, 『学术交流』
- 刘强敏·程滨朴·鲁可欣, 1995, 「日本关东军东宁要塞遗址简介」, 『黑龙江档案』
- 刘则刚, 2008, 「侵华日军东北要塞揭秘」, 『兰台内外』 2月
- 刘玉民, 2013, 「侵华日军“满”苏国境阵地军事要塞劳工问题概述」, 『黑龙江史志』 5月
- 马拖骠辣, 2015, 「二战最后一仗: 日本关东军虎头要塞覆灭记」, 『党的生活(黑龙江)』
- 梅竹, 2003, 「永远的罪证--记黑河日军侵华要塞遗址」, 『初中生学习』 6月
- 徐占江·滕建华, 2010, 「日本关东军要塞初探」, 『东北史地』
- 盛文丽, 2008, 「哈尔滨院课题成果《日本关东军要塞》出版」, 『中国社会科学院院报』
- 邵帅, 2019, 「日本关东军对苏防御作战要塞研究」, 辽宁大学 硕士学位论文
- 孙健·盛勇, 2005, 「五家山要塞: 侵华日军的又一罪恶铁证」, 『环球军事』 2005-7
- 宋吉庆·毕玉芬, 2004, 「从东宁要塞几次劳工反抗暴动, 看关东军对劳工及特殊工人的奴役统治和残暴镇压」, 『江桥抗战及近代中日关系研究(上)』
- 杨柏林, 2002, 「孙吴胜山要塞--日军侵华遗址」, 『黑河学刊』 100-5
- 杨步月, 2001, 「踏访第二次世界大战终结地」, 『新华每日电讯』(2001.8.15.)
- 杨彦君, 2009, 「侵华日军要塞区“特别移送”问题探讨」, 『学理论』
- 梁泰镇, 1985, 「韓·中·蘇 三國 國境上의 張鼓峰事件」, 『군사』 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오미영, 2023, 「할한골 전투에 대한 남·북한 역사 인식 비교」, 『몽골학』 72
- 俞培珍, 2015, 「关东军在“满”苏东部国境要塞的驻军及战略研究」, 哈尔滨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喻胜林, 2007, 「侵华日军虎头要塞遗址博物馆藏品建档工作浅析」, 『黑龙江史志』 2007-6
- 윤휘탁, 2024, 「만주국의 서남변경지구 ‘치안숙정공작’과 열화성 변경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1
- 윤휘탁, 2018, 「중국(中國)의 길림성(吉林省) 동부변계(東部邊界) 및 두만강 출해인식(出海認識)과 전략(戰略)」, 『중국사연구』 113, 중국사학회
- 윤휘탁, 2021, 「만주국의 국경분쟁과 대소련(對蘇聯) 인식-식민지 조선의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2, 호남사학회
- 이정용, 2008, 「1930년대 일본 육군의 파벌 항쟁」, 『한일군사문화연구』 6, 한일군사문화학회
- 임성모, 2001, 「‘國防國家’의 실험: 만주국과 일본파시즘」, 『中國史研究』 제16집
- 张宁, 2021, 「伪满洲国“北边振兴计划”研究」, 长春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张敏, 2003, 「《盛京时报》与清末东三省官制改革」, 『徐州师范大学学报』
- 褚海艳 主编, 2022, 「图们市图们市老促会踏查日本关东军亭岩要塞遗址」, 『全国老区工作年鉴』
- 中共黑龙江省委党史研究室宣传教育指导处, 2011, 「侵华日军虎头要塞遗址」, 『世纪桥』 2011-5
- 中日联合虎头要塞遗址调查团中方调查团, 1995, 「旧日本关东军虎头要塞遗址」, 『北方文物』

- 陈宏, 2021, 「侵华日军在东北修筑军事要塞及其所酿惨案」, 『大连近代史研究』 2021-3
- 陈鹏, 2008, 「侵华日军海拉尔军事要塞」, 『思想工作』 2008-5
- 陈春萍, 2012, 「日军侵华的历史见证--孙吴胜山要塞探秘」, 『大连近代史研究』 2012-9
- 车霁虹, 2008, 「东北边境日本关东军要塞的历史与现状考察」, 『北方文物』
- 车霁虹, 2012, 「神秘的关东军要塞」, 『百科知识』
- 李·蒙赫达贵, 2006, 「关于侵华日军海拉尔要塞遗址教育功能的思考」, 『呼伦贝尔学院学报』 14-3
- 韩冬云·于建章, 2014, 「侵华日军虎头要塞覆灭记」, 『奋斗』 2014-9
- 한석정, 2009, 「러일, 만몽, 몽몽의 대결-노몬한(할힌골) 전투 70주년 기념 학회 참관기」, 『만주연구』 9
- 许乐, 2019, 「访二战终结地 忆峥嵘抗战史-侵华日军虎头要塞博物馆巡礼」, 『党的生活(黑龙江)』 11月
- 홍용호, 2005, 「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상호인식과 자의식 : 1930년대말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 『사람(성대사람)』 23, 수선사학회
- 黑龙江大学历史文化旅游学院课题组, 2003, 「侵华日军东宁要塞群中国劳工、慰安妇调查报告」, 『黑龙江省社会主义学院学报』 2003-5

투고일: 2025년 03월 17일 심사완료일: 202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4일

■ Abstract ■

Borderland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Border Fortresses in Manchukuo

Park, Jangba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reorganization of Manchukuo’s provincial-leve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1930s and the construction of a series of border fortresse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uppet state of Manchukuo in 1932, its national system was reorganized. One notable point is that the number of provinces—the highest local administrative organs—continued to increase. This article first sketches the actual state of this problem and related policies. In other words, extending beyond existing studies, it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and form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borderland development,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border fortresses.

Among Manchukuo’s policies, the Northern Borderland Promotion Plan (北邊振興計劃) submitted in 1939—along with the Five-Year Industrial Development Plan launched in 1937 and the Million Household Immigration Plan enacted in 1936—was referred to as one of the regime’s three major national policies. The Northern Borderland Promotion Plan was implemented in the northern border frontier region stretching from Hunchun (琿春) to Mohe County (漠河縣). Specifically, the plan aimed to counter the Soviet Union. From Manchukuo’s perspective, the USSR posed a grave threat to its existence. Ardently, the Kwantung Army constructed 17 large-scale border fortresses. The existence of these fortresses reveals that Manchukuo once served as a wartime mobilization state. They also illustrate the enormous resources and manpower mobilized to counter the USSR. Understanding the border issues during the Manchukuo period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both the geopolitical positioning of the border region and its strategic role in national defense.

Key words: Manchukuo, provincial administration, borderland development, Northern Borderland Promotion Plan, border fortresses